『신앙과 학문』. 22(4). 69-103.

이슬람권과의 문화 산업 교류 방안 연구
-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ultural Exchange between Muslim Countries and Cultural Industries
- Focusing on Aceh region in Indonesia -

김성규 (Sung-Kyu Kim)*
김형길 (Hyung-Gil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s about the exchange of culture industry with the Islamic world- focusing on Aceh of Indonesia which has the greatest population of muslims in the world. Cultural industry exchange with Muslim countries has been limited to temporary or partial. Until Aceh has become the Special Province of Indonesia since it signed the Peace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in Helsinki with its central government in 2005 followed by the worst tsunami disaster on December 26, 2004, that resulted in the death of more than 200,000 people, it has not been opened as a disputed area that was extremely closed and blocked from the outside world, because the civil war had continued for 30 years from 1976 to win the Aceh independence from Indonesia. In order to study the exchange of culture industry with Aceh region which is governed by strict Islamic law, Sharia,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e Islamic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Indonesia and Aceh region. The real exchange starts with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residents of the area to create goodwill, friendship and peace. To begin with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Islamic countries and cultural industries; First, establis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Korean Culture Industry Center' in consultation with the local Islamic government. Secondly, they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local cultural industries by developing and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sqkim2002@gmail.com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marketing@gmail.com
2017년 11월 15일 접수, 12월 09일 최종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materializing appropriate contents. Third, the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can achieve the desired purpose by genuinely helping the Muslim people with the Biblical worldview based on the Word, loving it as brotherly love, and promoting it with trust. When the exchange of culture industry programs with Aceh is gradually activated, it will help to promote cultural industry exchanges with Indonesia, Southeast Asia and all Muslim countries worldwide. Through this, cultural industry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Islamic world would contribute to creating mutual understanding, friendship, reconciliation and a peaceful society,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to make the work of God's vision of salvation.

Key Words : culture industry, Islam, muslim, Islamic law, Biblical worldview

Ⅰ. 서론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에 있는 1만 8천여 개의 섬이 동서로 5천여 km 펼쳐져 있고 인구 2억5천만 명 이상인 나라로 세계 네 번째의 인구 강대국이며 다량의 천연자원을 가진 자원 강대국이다. 350여 종족 이상의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중동의 무슬림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슬림 국가이며, 6대 고등종교(이슬람 87%, 기독교 10%, 천주교, 불교, 힌두교, 회교, 유교)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 대국이기도 하다(어성호, 2010: 33).

인도네시아 아체는 804년 이슬람 독립왕국인 페르라크 왕조를 건설하고 이슬람교를 동남아시아로 전파한 말라카 해협의 관문이자 무역항구로 각광을 받았다. 1873년 네덜란드의 침공을 시작으로 30년간의 '아체전쟁'(1873-1902)에서 술탄은 항복했지만, 계속된 독립항쟁과 2차 대전 직후 인도네시아에 병합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에 항거하여 중앙정부군과 2004년 쓰나미가 나기까지 분리 독립을 위해 30여 년간 치열한 내전을 치르면서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근세 사상 최악의 쓰나미로 내전을 종식하고 분리 독립을 포기하면서 중앙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아체특별자치주가 된 지역이다.

현재 전 세계의 무슬림 인구는 약 16억 명, 세계인구의 4분의 1에 이른다. 가톨릭은 무슬림이 이미 유럽에서 가톨릭 인구를 능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유엔도 2020년이면 이슬람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종교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슬람은 산아 제한을 하지 않아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지난 70년 동안 2억에서 16억으

로 800% 급속히 성장했다(Christian Life Jeju, 2016.4.1).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97)은 기독교와 이슬람, 정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유대교 등 세계의 주요 문명 종교를 기반으로 10여 개의 문명권으로 나누어 논술한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에서 '앞으로 전쟁이 나면, 문명의 불연속선(Fault line)을 따라 일어날 것'이라고 갈파하여 서양문명에 대한 이슬람 일부 세력의 공격을 예견한 바 있다[1]. 그러나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써(마 22:37-40, 막 12:30-31) 행복한 사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명의 충돌'에서 우려하는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한 헌팅턴의 논지(論旨)에 반하여 서로 다른 문명이 성경 말씀에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 '충돌보다는 화합'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면서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잠언서는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고"(잠 3:29), "이웃에 신실하게 행하며"(잠 11:3), "이웃에게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잠 14:21, 31), "이웃에 좋은 친구가 될 것"(잠 17:17)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믿음으로 실천할 때, 온 인류가 행복한 삶을 공유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평화의 왕(사 9:6)으로 묘사하며 메시아의 왕국을,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사회(사 2:4; 7:25)로 기록하고 있다. 이 시대의 우리 사회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관한 풍조를 바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이슬람 지하드 곧 성전론(聖戰論)을 '테러주의'라는 사고구조가 팽배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평화의 사자였던 것처럼(엡 2:14-22)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용서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현한나, 2014: 199-231).

이 논문의 목적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체 지역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앞으로 모든 이슬람권과의 교류의 폭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슬람권에 확산되면 무슬림들과의 우호적이며 화해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평화로운 사회를 세워 가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

1) Samuel Huntington의 「문명과 충돌」이 1997년 발간된 후 불과 4년 뒤인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를 미증유의 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는 전통적 의미의 전쟁은 아니었더라도 서양문명에 대한 이슬람 일부 세력의 정면 공격으로 볼 수 있다.

II. 선행연구

1. 문화산업의 특성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이란 용어는 1930년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와 아도르노(T. Adorno)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Enlightenment*), 1944』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당시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문화산업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문화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른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된 성격이 짙었다(김승수, 2007: 15).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을 상품화하여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한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소수 특권층에만 국한되었던 ‘엘리트 문화’에서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 참여 문화’로의 이행이라는 문화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논의되었다(문화관광부, 2002). 20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대중문화는 경제적 부흥기를 등에 업고 보다 전문화되고 광범위 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문화산업도 좀 더 세분화되고 상품화의 형태도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안종배, 2012: 52-54).

우리가 흔히 문화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영화, 음악, 공연, 게임, 전시 등의 장르는 일반 산업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 표준산업분류를 개정, 문화산업을 ‘특수분류’로 설정해 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분야를 문화산업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전문 디자인업, 광고업, 공예품 및 한복 제조업과 유통업, 뉴스제공, 도서관, 박물관, 예술 및 문화 부문 교육 서비스업 등을 기타 문화산업으로 분류했다. 문화산업은 1)사회구성원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끼치고 2)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이 강하며 3) 유행 상품이어서 수명이 짧고 4) 타 산업에 비해 창구효과(window effect)가 높다는 특성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아직까지 산업화의 초기단계이며, 산업화의 성숙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수적인 관건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4).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뿐더러 이슬람율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아체 주와 문화산업의 교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와 한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크리스 바커(Chris Barker, 2002: 121)는 문화를 소재로 기업이 생산, 저장,

배포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 즉 문화콘텐츠를 대량생산, 대량유통하는 것을 '문화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이 논문에서는 교류가능한 문화산업과 연관된 산업 즉,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산업기술의 이전과 중개 등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2. 문화산업 교류의 유형

이 논문은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연구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실태와 아체의 역사와 사회, 교육, 문화, 산업, 정치, 종교 등에 대하여 선행 문헌연구와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개최된 학술회의, 세미나 등에서 토의 내용과 리포트, 현지 언론매체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아체와 지금까지 추진한 문화산업 교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콘텐츠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중소기업 비즈니스와 산학 협력

아체가 2005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맺은 '헬싱키 평화협정에 따라 외교, 국방, 국가안전, 재정, 사법 등 일부분을 제외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2006년 수립된 아체특별자치주에 보장하고 있고, 이 협정에는 아체 주가 '국내 국제적으로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직접 투자와 관광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목재, 팜오일, 고무 등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의 분리 독립운동과 쓰나미, 그리고 정세불안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3년 1월 29일 한국기업들이 아체 주 정부와 시아쿠알라대학교에 제안함에 따라

---

2) '헬싱키평화협정' 「The Helsinki Agre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Free Aceh Movement, 2005」- 이 양해각서는 2005년 8월 15일 헬싱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GOI)와 자유아체운동(GAM) 사이에 체결된 일명 '헬싱키평화협정'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아체는 새로운 특별자치 법으로 아체특별자치주를 통치하되, 외무, 국방, 국가안전, 통화 재정, 사법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아체와 한국 기업 간의 교육산업, 문화 예술, 과학 등의 협력을 위한 「Aceh Korea Corridor: 아체 한국지대」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목적으로 아체 주정부 각 기관 대표와 개발 파트너인 시아쿠알라대학교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체쓰나미연구센터」에서 발족했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맡게 될 교육, IT, 그린에너지, 의료, 해양수산 개발 등으로 이루어진 분야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 측 T/F(Task Force) 팀도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구성하기로 했다. 아체 주의 현재의 경제발전 상황에서 볼 때 한국 중소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하여 아체에 진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유형을 이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아체 주에는 교육자료 회사인 ㈜ EduStandard를 비롯하여 태양광과 배터리 등 3-4개 한국 중소기업이 법인을 만들어 비즈니스에 진출하고 있다.

(2) 교육 기능에 대한 협력

인도네시아 아체는 최근 30여 년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의 분리 독립을 위한 무력투쟁으로 인한 교육 공백으로 문맹률이 높은 편이며, 오랜 동안 지속된 분쟁과 쓰나미 재해로 교육 시설은 소실되었고 어린이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교수 등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회의 특성상 미술, 음악, 예술,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국립대학인 시아쿠알라대학교에도 미술 관련 과목이 없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미술에 관한 수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2010년 시아쿠알라대학교의 부총장과 체육 교수가 한국의 교육제도와 커리큘럼 연구차 서울과 제주를 방문하고 아체 주정부와 교육당국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어린이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까지 각 급 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와 일반 주민들이 예체능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교육 제도와 체제 그리고 재정 형편상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체 주 정부 교육 당국에서는 우선 인터내셔널 유치원과 국제학교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를 한국에서 세우도록 제안하고 있다. 아체 대학에서는 모든 분야 학생들에게 정부 또는 대학의 스칼라십으로 아체 대학생들을 한국이 초청하여 교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간 제주대학교를 비롯하여 매년 2-3명 정도 교환 장학생 12명의 아체

대학생들이 2016년까지 한국에 유학하고 있다. 현재 '아체 한국문화원'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초 미술 세미나와 실기 워크숍 그리고 한국어 강좌를 초급반에서부터 8개 클래스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 강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3].

아체는 국립 쓰나미 연구소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해양과학기술공원'에 인터내셔널 유치원과 초급학교 과정, ICT 센터 및 영어 한국어 등 언어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육관, 문화예술센터와 한국홍보전시관, 한국전통음식관, 그린에너지, 의약 및 의료기기 사업과 우수 산업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제커뮤니티' 건설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3) 스포츠 교류

804년 최초의 이슬람 독립왕국을 수마트라에 세운 아체 족은 1873년 네덜란드의 침입을 받고 30년간의 '아체 전쟁' 끝에 1902년 술탄은 항복을 했으나 아체 족 주민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줄곧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항거한 용맹스러운 종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처음으로 협의할 때 아체 주 당국이나 대학에서는 다른 문화산업 교류도 중요하지만 먼저 태권도 사범 파견을 제일 순위로 요청할 정도였다. 아체 주민들은 특히 호신술을 겸한 격투기로서 글로벌 올림픽 스포츠인 태권도를 직접 수련하거나 시범을 보기를 몹시 좋아한다.

태권도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개발도상국에까지도 보급되고 지원을 통한 한류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태권도 이외에도 세계 및 아시아 정상급 수준에 있는 축구, 양궁, 유도, 레슬링, 역도, 테니스 등 종목의 한국 스포츠 지도자를 파견하고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 선수와 경기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교환 경기와 전지훈련 등 스포츠 교류의 확대를 통해 무슬림 지역의 국가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 특히 2018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스포츠 교류는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

3) '아체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 Aceh)': 2008년 3월18일 제주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 Jeju Campus) 대표와 아체특별자치주 지사와 국립시아쿠알라대학(Universitas Syiah Kuala: www.unsyiah.ac.id) 총장 간의 쓰나미 재해 복구와 산업, 교육, 학술, 문화 등 상호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MOU를 맺고, 그 목적의 실천을 위하여 3자 대표자가 협의하여 세운 한국 인도네시아 아체 간 문화산업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비정부기관이다.

기대된다.

(4) 문화 예술 교류

한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주로 K-Pop, 가요 등 음악, 드라마, 한국어, 한국음식, 게임, 애니메이션, 스마트폰, 자동차 등 한국의 우수 산업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TV 방송 과 SNS 등 대중 매체의 발달로 한국의 문화콘텐츠, 즉 한류가 세계화의 물결을 타게 되었고 아체 주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한국의 드라마, 음악, 전통 음식, 미술실기 지도, 한국어 교육 등이 점차적으로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는 아체 무슬림 주민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선정하여 교류의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아체 지역 사회에도 급속도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아체 내에서는 K-Pop 아이돌 그룹의 음악과 무용이 청소년 대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한국의 가요와 전통 무용을 즐기고 있다. 특히 뮤직 비디오나, 유튜브 등으로 접한 이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 아체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아체를 방문하는 대학생 현장 실습 팀이나 사회봉사 팀들이 준비해 간 콘텐츠는 곧바로 아체 사회에 전수되어 합동 공연이 가능할 정도로 익숙하게 전파된다. 여기에는 한국의 고유 의상인 한복과 전통 음식으로 비빔밥, 불고기, 김치전, 떡볶이, 태권도 시범 등이 곁들여져 또 한 종류의 성황을 이룬다.

2012년 6월 시아쿠알라대학의 학술문화대표단 32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인덕대학에서 학술회의와 아체 전통무용 사만을 공연하였고 아체 풍물전시회를 가졌다. 2016년 11월에는 아체 대학원생들과 지도교수들로 구성된 17명의 학술문화대표단이 제주를 방문 열방대학에서 논문 발표와 아체 전통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제주대학에서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다.

2016년 11월 초 주인도네시아 한국 조태영 대사가 시아쿠알라대학과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아체와 한국 대학생들의 합동공연 프로그램은 K-Pop과 가요, 부채 춤, 태권도 시범, 그리고 끝으로 88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를 40여명이 한국어로 합창하여 관중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Ⅲ.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1.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현황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Muslim) 인구를 가진 나라임에도 이슬람이 국교는 아니다. 오늘날 전체 인구 약 2억 5천만 명의 87%인 2억 명 이상이 무슬림으로 추산되는 인도네시아는 그 구성 종족들이 지리적, 문화적, 종족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배경이 매우 다양하여 동질적인 요소보다 이질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300여 종족과 국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외에도 583종류의 지역 언어가 공존하고 있다(Johnston, 2002: 583). 1596년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들어 왔을 당시 이슬람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왕족들과 지배계층에서 유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화 과정은 중동의 정통 이슬람과는 서로 다른 이슬람 과정을 거쳤다. AD600년 이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신앙은 정녕숭배였고 바다를 통해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항구를 통해 힌두, 불교가 전래되어 거의 1천년이 지난 후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민속신앙과 실천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신비주의와 애니미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수세기 전에 건너 온 인도화 된 이슬람도 섞여있다(공일주, 1997: 79).

인도네시아 이슬람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지만 Samsul Rizal(2014) 시아쿠알라 대학 총장 등 아체 학자들에 의하면 632년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사후 40년이 되는 672년에 아라비아 예멘을 통해 이슬람이 아체왕국에 전파되었고,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아체를 통해 이슬람교가 포교되었다고 주장한다.

Marco Polo(1254-1324)의 동방견문록에서도 1292년 북 수마트라의 파사이에 이미 무슬림 공동체가 있었다는 보고를 하였고(Lapidus, 2008: 634), 804년 수마트라 섬 서북단에 세운 아체 왕국이 이슬람교를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아체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사의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45년 8월 17일 건국일에 선포된 헌법 제11장 종교 제29조에 규정된 빤짜실라(Pancasila)이다'[4]. 제1항 국가는 최고의 신에 기

초를 둔다. 제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한 신앙의 자유와 각자의 신앙과 종교에 따른 종교적 자유와 의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한다. 빤짜실라의 이러한 규정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및 종족 문화를 합중국 형태의 거대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틀이 되었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이면서도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지 않은 이유이다.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인도하는 원리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로 여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어떤 인종, 피부색, 공동체, 국가에 속해 있든지 무슬림이라고 말한다(Cooper Ann, 1993: 32, 48). 따라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민족이나 국가, 지연이나 혈연을 초월한 '형제애'를 강조하는 세계종교라고 설명한다(정수일. 2002: 32, 57).

지난 반세기 동안 수카르노와 수하르토가 이슬람 세력의 국가건설 요구를 외면했지만, 이슬람 부흥운동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약속을 재 정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양승윤, 2003: 52). 이들이 원하는 이슬람 정부는 이슬람법이 확립된 정부로서 종교학자나 지도자들이 정치권력을 쥘 수 있는 정부를 의미 한다(어성호, 2010: 33).

2. 인도네시아의 민속 이슬람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공식(formal)' 이슬람과 '민속(Folk)' 이슬람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공식 이슬람을 고급(high), 이상적(ideal), 정통적(orthodox), 형식적(formal)이라고 하고 민속 이슬람은 이와 상대적으로 저급(low), 대중적(popular), 애니미즘적(animistic), 비형식적(informal)이라고 한다. 공식 이슬람은 알라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민속 이슬람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신적인 것을 조종하려 한다. 공식 무슬림은 예배 때 신의 이름을 묵상한다면 민속 이슬람은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여

4) 빤짜실라(Pancasila)는 산트크리스트어에서 '다섯'을 의미하는 빤짜와 '원칙'을 의미하는 '실라'의 합성어이다. 다섯 가지 선포된 인도네시아 헌법이념은 ① 유일신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one and only God) ② 공정하고 문명화된 인본주의(Just and civilized humanity) ③ 인도네시아의 통합(The unity of Indoneia) ④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Democracy guided by the inner wisdom in the unanimity ⑤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회정의(Social justice for all of the people of Indonesia)

그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공식 이슬람은 내세와 꾸란과 신학자에 중점을 두지만 민속 이슬람은 질병과 고난 등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둔다(공일주, 1997: 79; 2008: 88)민속 이슬람(folk Islam) 혹은 대중 이슬람(popular Islam)은 정령 숭배 요소들이 교리 또는 신학적인 이슬람으로부터 분리된 대중적인 이슬람의 민간 신앙이다(Musk, 1979). 일반 공식 이슬람은 이슬람 율법학자인 울라마와 이맘 등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공식 계층 구조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전 아랍어로 낭송하는 꾸란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한다. 반면 민속 대중 이슬람은 의술인, 마법사 등 여성도 포함된 능력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같은 중심 건물은 없고 능력이 나타난 장소를 사당으로 하는데 나무나 시냇가 등에서 의식을 행한다. 이슬람 윤리 면에서는 일반 무슬림들은 꾸란에 근거한 법적 사회적 체제를 갖추고 주기적인 의식을 갖고 사회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다(Musk, 1989).

한편 민속 이슬람은 구어체 방언을 사용하면서 영적 세계에 적합한 것으로 도덕과는 무관한 이슬람교의 신화인 정령-진(Jinn)을 달래거나 복을 비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의식을 행한다(Musk, 1979).

민속 이슬람의 주요 관심은 일상생활과 죽음의 의미, 개인이나 집단의 불행과 안전,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공적인 계획과 미지(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 인간관계, 조상, 영, 귀신, 마귀,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 등이다. 이러한 관심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주로 천국, 성자, 심령치료사, 점성술, 강신술, 부적 등의 민간신앙의 요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공일주, 1997: 81).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의 70% 혹은 85% 이상이 대중(ordinary) 혹은 민속(folk) 이슬람에 속한다고 한다. 이들 안에서도 대중 이슬람에 해당되면서도 서로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계층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부적이나 주술을 시행하거나, 가끔 샤먼(Shaman)이나 주술사를 찾고, 위기 시에 몰래 샤먼이나 주술사를 찾는 무슬림, 그리고 모든 형태의 주술을 거부하는 무슬림까지 포함된다고 한다(하호성, 2011: 16).

일반(ordinary 또는 formal) 이슬람의 강조점이 알라에게 복종과 경배라면 대중(popular 또는 folk) 이슬람은 신적인 것이 어떻게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Musk (1978)는 이슬람의 여섯 가지 교리와 다섯 기둥의 행위가 갖는 일반 이슬람(또는 공식 무슬림)에서의 의미가 민속 이슬람(또는 대중 무슬림)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가를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다.

Table 1 Meaning Difference between Ordinary Islam and Popular Islam

Function	Form	Ordinary(Formal) Islam	Popular(Folk) Islam
Expression of Obedience to Allah (Six Doctrines)	Allah, monotheism	Confession of faith in monotheism	Using the magical name of Allah
	Angels	Servants that please Allah	Function of mediator, using angels to order
	The Qur'an	Allah's revelation	Fortune-telling, the Qur'an
	Prophets	Tools to convey the word of Allah to humans	Functional figures, relic worship
	The Last Judgement	Ethical focus of human life	Actions getting achievements for the dead
	Jinn/Destiny	Ultimately everything is in the hands of Allah	Attempts to change the fate of All in the night of power
Expression for Community Affiliation (Five Pillars)	Confession of Faith	To prove true muslim	In the space where evil lives Protected
	Prayer	Body cleanse to worship Allah	To wash away the pollution and sin of the devil with water
	Charity	Responsible for fellow muslim	Prevention of Evil eye (Nazar boncuk)
	Fast	Sign of community commitment	With Muhammad worship a night of power
	Ritual	Visiting the center of faith (mosque-temple)	Barakah-god's 'blessing' or visit the shrine instead

Ⅳ. 아체 지역의 특성

1. 아체의 역사, 종족 및 지리적 특성

아체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서북쪽 말라카 해협 입구에 위치한 이슬람 특별자치주이다. 2014년 아체특별자치주 정부통계(Buk Saku Aceh 2014: 17-60)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아체 주의 인구는 총 4,639,90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 중 남자가 2,346,900명이고 여자가 2,347,000명이다. 아체의 면적은 57,385.57㎢이며 119개 섬과 35개의 산, 2개의 호수, 그리고 75개의 크고 작은 강으로 되어 있다.

아체는 2차 대전 후 스카르노와 하타가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을 선언했으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식민지로 재점령하기 위한 무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아체는 분리 독립을 주장했다. 1949년 12월 27일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이 탄생되었다가 1950년 8월 연방헌법이 폐지되면서 아체를 북수마트라 주에 합병하게 되자 아체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기치를 걸고 무장투쟁에 들어가게 되었다(양승윤 2003: 52).

1976년 아체는 '자유아체운동'(GAM: Free Aceh Movement)을 조직하는 한편 스웨덴에 아체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무장독립 투쟁을 했다. 2004년 12월 26일 쓰나미 대재앙으로 끝이 보이지 않던 아체 내전은 30여 년 만에 헬싱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GAM 간에 평화협정으로 종식되고 아체특별자치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4년 아체지역의 쓰나미 피해는 당시 아체 인구 약 400만 명 중 20여만 명의 인명 피해와 50여만 명의 이재민을 냈다. 한국, 미국 등 세계 56개국의 국가 원수와 수반들 그리고 UN, EU, 국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원조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를 통하여 지원되었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NGO와 자원 봉사자들이 폐쇄되어 왔던 아체를 방문하여 복구지원 활동을 벌였다. 결국 자유아체운동(GAM)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2005년 8월 1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전 핀란드 대통령 마티 아티사리(Martti Ahtissari)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다.

아체 지역에는 아체 족(Acehnese)이 79%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과 인도에서부터 바탁(Batak) 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적 혼합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아체 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외세에 굴하지 않는 강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와 아체 왕국 간의 30년 전쟁(1783-1893)은 아체 족의 강인한 투쟁정신과 긍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체 족은 전통적으로 모계사회로 결혼하면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관습이 있고, 아체 지역 태생 이외의 주민들과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아체특별자치주의 공식 언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체지역 안에는 8개 정도의 서로 다른 아체어가 공존하고 있다.

2. 아체 지역의 사회, 교육, 문화, 산업

1945년 2차 대전 후 2005년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아체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분리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으로 40여 년간의 분쟁지역으로 외부 세계와는 극단적인 단절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했다. 아체 학교에서는 교육이나 사회적 환경, 인적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암흑기였다. 노년층은 물론 청년들 심지어 소년들까지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공백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로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세대 간의 정서적 공백이 크게 벌어져 있다.

2004년 쓰나미 대재앙은 아체의 인적 물적 거의 모든 자원을 파괴하고 앗아갔다. 시아쿠알라대학교의 교수진과 가족도 쓰나미로 2백여 명이 희생되어 아직까지도 충원되지 못하고 60% 정도의 교수진만이 상위학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희생된 교수들의 자리를 충원하지 못한 채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다(Overland, 2005: 37-38). 아체도 199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9학년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는 학비에서 크게 차이가 나며 국립대학으로는 시아쿠알라 종합대학교와 이슬람 종교대학 외에 사립 및 전문대학이 8개 있다.

아체의 인구 밀도는 1㎢ 당 83명에 불과하다. 15세 이상 취업 인구는 1,798,547명으로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가 46.86%, 서비스 분야 19.67%, 무역업 15.70%, 제조업4.11%, 기타 업종이 13.66%로 되어 있다. 아체의 주요 산업구조는 석유, 가스 산업, 천연고무, 농산물, 임산물, 금속광물 등인데 특용 작물로는 야자유, 코코넛, 카카오, 커피, 사탕수수 등이 있다. 축산은 소와 물소, 염소, 양, 말을 기르고 있다. 그 밖에 수산업도 유망한 업종이지만 현재로서는 전력 생산이나 공급이 절대 부족하여 냉장 등 갈무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Buk Saku Aceh 2014: 463-479). 인도네시아 통계청자료(Badan Pusat Statistik, 2014)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GDP(국내총생산)는 1조 3,230억 달러로 2012년 PPP 기준 세계 16위, 1인당 GDP는 3,562.6 달러(PPP 기준 5,280달러)이나 아체 지역 경제의 지표는 이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삶의 일체라는 점에서 이슬람 세계의 학

문과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체 주의 중심도시인 반다아체조차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아직까지도 없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아체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오락이고 문화생활이다. 아체의 전통 문화 예술로는 사만(Saman)이라는 아체 전통 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아체(Aceh)라는 지명은 흔히들 Arab, China, Europe, Hindia(India)의 첫 글자의 약자라 하여 4개 지역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3. 아체지역의 정치와 종교

2005년 8월 15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평화협정을 맺고 특별자치주로 출발한 아체는 평화협정에 규정에 의해 제정된 법에 따라 외무, 국방, 국가안전, 통화 재정, 사법, 종교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체특별자치주는 인도네시아 34개 주에서는 유일하게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로 철저히 샤리아로 통치하고 있으며 이슬람 외에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2기(2012년-2017년) 선거에서 아체 주지사로 당선된 자이니(Dr. Zaini Abdullah)는 GAM(자유아체운동) 망명정부 제2인자인 외무장관이었고, 부지사 무자킬(Gen. Muzakir Manaf) 역시 GAM의 총 사령관 출신으로 강성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들로 정치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이다. 주 정부 지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정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주의 필요한 법규와 운영 세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도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치자주로서의 입법, 사법, 행정 제도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 일은 물론 쓰나미 재해 복구와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등 중앙정부와 외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주 정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2010년 「베다니세계기도센터」와 한국컴퓨터선교회의 세계복음화 리서치센터 보고에 의하면 아체지역의 이슬람교도 무슬림은 샤피-수니파 원리주의자들로 99.9%로 보고하고 있다. 아체 지역 주민은 약 8개의 방언을 쓰고 있으나 공식 용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하고 있다. 아체 족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1% 미만으로 등록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319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경 일부가 아체어로 번역되고 있고, 미전도

족인 아체 종족을 위한 선교단체는 18개 단체가 있다.

2010년 아체지역 주민 4백 10만 명 가운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231,500명(39%)으로 현지 기독교인에 의한 경우가 95,000명(3%), 외지인에 의한 경우가 1,136,500명(36%)으로 되어 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1,925,400명(61%)으로 나타나 있다. 주도(州都)인 반다아체에는 감리교 등 개신교 3개소, 카톨릭교 1개소 등 4곳의 교회가 있지만 아체 족이 아닌 외부인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북 수마트라 주 접경지역 싱낄(Singkil)에 10여 개의 교회가 산재하고 있으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외에 일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13일 무슬림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아체 정부에 대해 교회를 폐쇄하라는 건의가 있었다(Jakarta Post, 2015.10.15.: 6). 보통 우리는 이슬람을 종교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슬람을 종교로 국한시켜 이해하자면 무슬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무슬림에게 있어 이슬람은 종교이자 곧 삶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복합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슬람 자체를 하나의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남은영, 2016: 158-177).

Ⅴ. 한국과 아체지역 간 문화산업 교류실태

1. 아체와의 교류협정(MOU) 및 아체 한국문화원 설치 운영

제주열방대학은 2004년 아체 쓰나미가 발생한 당시 긴급구호 팀을 현지에 파견한 것이 인연이 되어 2008년 3월 18일 아체특별자치주와 국립시아쿠알라대학교(Univertas Syiah Kuala: Unsyiah, 운시아) 3자 간에 교육, 학술, 문화, 산업 등 교류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고 시아쿠알라대학교의 초청으로 방문교수 1명과 태권도 사범 가족 등 6 명이 아체 주도인 반다아체(Banda Aceh)에 들어갔다[5]. 아체지역과의 문화산

5) 제주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 Jeju campus: www.uofnjeju.org)은 하와이에 본부를 둔 기독교 종합대학교의 분교로서 1996년 제주시 조천읍 북촌에 세우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독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양성하여 사회 각 영역(8-Mind Molders: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커뮤니케이션, 문화예술, 종교, 가정, 과학기술)에서 선교와 헌신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에 관한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체한국문화원』을 설립하고 한국 홍보를 위한 전시관 「Korea Corner」를 시아쿠알라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개설했다.

2012년 1월 26일 주 자카르타 대사관의 김영선 대사가 처음으로 아체를 방문하여 한국문화원을 공식 개원한 이래 정부의 해외문화원과 자카르타 대사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로 아체지역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를 위한 목표는 아체의 슬픈 전쟁과 분쟁의 역사를 조명하고 쓰나미로 인한 재난 복구를 위하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과 화해, 그리고 상생을 모색하며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사업가인 럽과 스티브(Rob Gymrek & Stephen Goode, 2008: 1-12)에 따르면 "아체는 1945년 2차 대전 후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 분쟁과 내전으로 거의 모든 분야가 공백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문화 예술 및 스포츠 활동은 침체되었고, 예체능 교육은 전무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아체의 정서를 회복하도록 예체능 교육을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아체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 태권도 사범 파견과 미술 실기 지도 와 한국어 교실을 여는 것이었다. 한편 국내 대학과 문화기관 그리고 중소기업들 간의 문화산업 교류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면서 아체지역 주민들이 복음을 접하도록 도우며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는 믿음의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이는 기독교의 범세계 성을 강조할수록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김형길・이규현, 2013: 37-54).

(1) 교육, 문화 산업, 스포츠 등 교류

2008년 11월 시아쿠알라대학교 총장과 교수들, 아체 주정부 지도자들로 구성된 11명의 대표단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여 교육 문화 산업계를 시찰함으로써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가 본격화 되었다.

2008년 인도네시아 아체와 MOU를 맺은 후 매년 열방대학 FAF(순수미술학교) 미술센터 팀이 아체를 방문하여 시아쿠알라대학교 건축과 학생들과 미술/건축 세미나와 워크숍, 전시회, 어린이 미술실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9년 8월에는 열방대학과 아체 대학 공동으로 「종합스포츠 세미나/워크숍」을 1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스포

츠의 가치와 역할 등 체육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2009년부터 3년간 태권도 지도자를 파견하여 아체 대학생과 경찰 및 주민들에게 태권도를 지도 보급했다.

2010년 대학건축학과 교수와 학생 2명을 신동아건설의 협조로 서울에 초청하여 1개월 간의 건축 인턴십을 하도록 했다. 2010년 6월에는 학사담당 부총장과 체육 교수가 대학커리큘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제주, 부산,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서울 인덕대학교와 열방대학의 초청으로 아체 대학 부총장 2명, 대학원장, 경제대학장 등 교수 12명과 학생 대표 19명 등 31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학술 문화 산업 세미나와 전통예술 공연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 기간 중 아체 대표단은 삼성, LG 등 한국의 선도 기업 견학과 문화 산업 등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견학할 수 있었다.

2011년 9월 9일부터 1주일간 ㈜ 에듀스탠다드와 열방대학의 초청으로 시아쿠알라대학교의 Samsul Rizal 신임 총장과 Darusman 부총장(현 대학원장), 의과대학장 등 7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원주, 제주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아체 간 교육 문화 학술 의료 교류와 산학협력, 특히 아체 대학에서 신설하는 대학 부속병원 설립을 돕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 원주의료원, 그리고 제주대학교 부속병원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교류협력을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0년 2월 제주대학교와 자매결연(MOU)을 맺고 아체 대학생 3명이 제주대학교의 풀 스칼라십을 받아 제주대학교에 유학한 이래 2012년과 2013년 각 2명을 교류수학 학생으로 제주대학교에 유학했다. 이에 앞서 제주대학교가 추진하는 외국학생 초청 <2011 JNU Summer Program>에 2명의 남녀 학생이 참가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받으면 학년 편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서로를 알고 알리는 기회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와 삶의 비옥한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13년 서울 교육대학교, 2014년 6월 강원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2015년 한양대학교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수학학생과 교직원 교류를 포함한 문화산업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10월 20일부터 1 주일간 시아쿠알라대학교 대학원장 인솔로 대학원 학술문화 교류 팀 17명이 제주를 방문하고 열방대학과 제주대학교에서 학술 교류 행사를 가졌다.

2009년부터 계절별로 열방대학 현장실습 팀이 아체를 방문하고 이곳 대학생들과 Korea-Aceh 친선캠프, 미니 콘서트, '리틀 코리언 나이트' 등 전통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매년 운시아 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2년 첫 학기부터 운시아 대학언어센터(Pusat Bahasa, Unsiyah)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2015년 현재 초급반 3 교실, 중급반 3 교실, 특별반 2 교실 등 8개 한국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홍보전시관 「Korea Corner」에는 한국 홍보자료로 서적 및 DVD, 영상자료, 사진, 한국 인형, 태권도 복 등 스포츠 용품과 기념품, 한국의 전통의상(남여 한복, 소아복 등)과 사진과 관광포스터 등을 전시하여 축제 때 사용하고, 기념사진 촬영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 대학의 스칼라십, 유학제도 소개와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로 대·소 북, 징, 꽹과리, 장고 등을 갖추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음식축제 등 문화행사 때에 연주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서울 인덕대학교 학생 봉사단 각 팀 32 명이 2010년-12년에 3회에 걸쳐 여름 방학기간에 아체를 방문하여 아체대학생들과 코리아-아체 친선 캠프, 세미나 등 문화교류와 사회봉사 활동을 한 바 있다. 2012년 3월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 지도자 "믿음의 가족" 22명이 아체를 첫 방문한 이래 매년 '한국전통음식문화축제'와 곁들여 민속공연을 열고 있다. 2012년 2월 20일부터 3주간에 걸쳐 열방대학의 목조건축 팀 6 명이 아체를 방문하여 이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목조건축 워크숍으로 "드림 태권도 체육관" (18.2m × 8.2m)을 건축했다. 2017년 중반부터 태권도 사범을 아체에 파견하여 대학생들과 현지 경찰 등 주요 기관 요원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보급하게 된다.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시아쿠알라대학교 총장의 초청으로 대학 창립 54주년 기념행사와 졸업식에 제주열방대학 책임자와 기획처장, 아체 한국문화원장이 아체를 방문했다. 이 기회에 열방대학 현장실습 팀과 미술센터 인턴십 팀이 어린이 미술대회와 전시회 그리고 태권도 시범과 민속공연 행사를 주최하고 자카르타 한인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 전통음식 문화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2016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조태영 대사가 아체를 공식 방문하여 운시아 대학에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의 정세'라는 연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대학 총장 등 일행과 함께 한국문화원과 「Korea Corner」전시장에 준비된 한국-아체 대학생 연합 문화예술 공연을 참관하고 한국과 아체 간의 문화산업 교류협력에 더욱 힘써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는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현지

이웃들과 사회 공동체를 위한 모든 봉사활동들을 책임이 아니라 '사명'이며 본분으로 믿고 수행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어 누구나 살고 싶은 세상인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김성호, 2012: 180-203)

(2) 아체 교육・문화산업 엑스포

2011년부터 산학 협력을 위하여 교육, ICT, 그린에너지 개발 사업 등 아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그린에너지, LED, 의학 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아체 대학과 한국기업들 간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쓰나미로 인한 아체지역 사회의 복구 작업과 개발을 도움으로써 한국과의 문화 산업 교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체지역과의 교육・문화 산업 협력을 위하여 한국의 교육학습 자료제작을 하는 (주)에듀스탠다드와 시아쿠알라대학교 간의 MOU를 체결하도록 협조하고 교육・문화 산업박람회를 개최했다.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아쿠알라대학교와 (주)에듀스탠더드, 아체한국문화원의 공동 주최로 대학의 특설 전시장과 캠퍼스에서 <EDU 2012 Aceh EXPO> 를 열었다.

우리 정부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후원과 자카르타 한국대사관과 아체 주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이 엑스포에는 한국의 43개 중소기업체와 3개 교육 문화 관광 업체가 참가했다.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소개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뒤쳐진 아체 산업발전에 자극과 도움을 준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2013년 10월에는 이 대학 자체 EXPO인 <2013 UNSYIAH FAIR>에 한국으로부터 영어 교재와 학습용구, 그린에너지,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들을 초청하여 홍보하고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열악한 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교육・문화 산업, 그린에너지, 의약 및 의료기기 제작 등을 위한 현지 회사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3년 2월 28일 아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아체 대학 총장, 부총장과 아체 진출 기업 대표들이 자카르타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김영선 대사 임석 하에 KOICA, KOTRA 대표와 자카르타 주재 한국문화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체 지역의 교육 문화산업 발전 전망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인도네시아 아체는 자원의 보고로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때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 진출로 경제적인 교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체와의 산업 교류를 위한 창업 프로그램 개발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체 지도자들에게 성경적인 재물관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재물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재물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재물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조성표, 2003: 41-54)라는 인식을 공감함으로써 아체 산업 환경 변화에 기여하도록 협조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음은 한국과 아체지역 간 문화산업 교류실태- 교육, 문화 산업, 스포츠 등 교류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주요 정보를 요약한 자료를 Table 2 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2 Exchange Programmes between Korea and Aceh, Indonesia(2008-2016)

Date/Month/year	Exchange Programmes	Participants	Results
2008 18/Mar	MOU signed by UofN, Unsyiah, Aceh Special Province	Presidents of UofN/ Unsyiah/Governor, Aceh	To exchange all kinds including education, arts, sports, culture industry, etc.
Mar-Dec	4 tims of Conferences in Aceh for Exchange Programmes	Delegates of 3 parties	Invitation for One Visiting Professor and Taekwondo Instructor(family) to Aceh
November	Fine Arts Seminar in Aceh for one month	7 Artists of UofN Jeju	300 Students/School Teachers & Citizens
2009 2 weeks in July	Sports Seminars, Taekwondo, Basketball, Football Rules & Training	Sports Instructors & Coaches(Koreans/American)	100 instructors & 500 Students
One month in August	Korean-Aech Students Camp	Language, Visit to Culture/Historic sites	15 Korean vs. 50 Acech Students
2010 February	MOU with Jeju National University(JNU) and Syiah Kuala University(Unsyiah)	Scholarship for 3 Students of Unsyiah	To study Korean language and one major for one year
April	Architecture Internship, Seoul sponsored by Sin Dong-A Construction Co.	One Professor & one Student	Field Training & Research in Seoul/ Incheon
June	Curriculum Research Programmes for Unsyiah Professors	Vice President & Professor of P.E. Dept.	Universities in Jeju/Busan/Seoul for 12 days

<continued>

Date/Month/year	Exchange Programmes	Participants	Results
2011 August	Social Service & Field Training Programme in Aceh from Induk University in Seoul MOU with Unsyiah	2 Professors & 30 students/Unsyiah students for 15 days (3 times in Summer in 2010/2011/2012)	Social Service Programme /Language, Arts & sports-Taekwondo demonstration
September	To Visit Medical College Programmes for Consulting Management for Establishing New Medical college	Unsyiah President, Vice President, Dean & Professors from Unsyiah	University Hospitals in Jeju/ Busan/ Seoul for 12 days
Oct-Dec	Industrial & Academic Cooperation, Korea-Aceh universities	Unsyiah-Korean Small & Medium Industries Cooperation Programmes	Seminars for Education, ICT, LED, Medical & Green Energy Development
2012 February	Wooden Construction Workshop in Unsyiah, Aceh for 3 weeks from 20 Feb	7-members' UofN School Team working with Unsyiah Students	Constructed Taekwondo Gym (18.2mx8.2m)
February	Edu 2012 Expo in Aceh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 Embassy Feb 29-Apr 2	43 Small-Medium Industries & Edu/Tour/Culture Org. participated	More than 15,000 Students & Citizens witnessed
March	Teaching Korean Language Class established in Pusat Bahasa, Unsyiah	Unsyiah Students & Residents in Aceh	Present: 80 students at 8 classes
August	Korean Traditional Food Festival in Aceh sponsored by Jakarta Residents leaders	20 Korean Residents in Jakarta, 40 students Unsyiah/UofN Field Training Team(UofN)	400-500 Aceh students and citizens enjoyed
2013 28/Feb	Presentation at Korean Embassy by Koean Industries in Aceh	Ambassador, KOTRA, KOICA, Rep. Industries in Jakarta, etc.	Explanation on Industries, Korean-Aceh Cooperation
2013-2015	MOU with Universities of Seoul Edu/Kangwon/Daejeon /Dongguk/Hanyang	Students, Professors & Staff Exchange Programmes started	4 Students from Unsyiah in Seoul universities
2013-2016	2-3 Field Training Teams & Fine Arts Teams from Korea to Aceh every year	For Exchange Programmes	With Unsyiah Students & Residents in Aceh

2. 문화 산업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아체지역의 문제와 특성

아체지역과의 문화 산업 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 아체 지역의 ① 역사와 전통, 종족 및 종교 ② 사회, 교육 및 문화 ③ 정치, 경제 및 산업 등이 처하고 있는 문제와 특성을 이해하고 현 실태 상황을 예의 검토함으로써 아체지역 교류 방안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자 한다.

(1) 아체 지역의 역사와 전통, 종족 및 종교의 특성

아체는 인도네시아 34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근본주의 이슬람 율법, 샤리아로 통치하고 있다. 1873년부터 1904년 또는 관점에 따라서는 1914년까지 네덜란드와 30년-40년간 '아체전쟁'을 치룬 술탄왕국이기도 하다. 2차 대전 후 이도네시아가 독립하면서 아체가 북수마트라 주에 합병되자 아체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1976년부터 2004년 쓰나미가 날 때까지 스웨덴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중앙정부군과 무장투쟁을 벌여왔다. 2004년 아체지역의 쓰나미로 당시 아체 인구 약 400만 명 중 20여만 명의 인명 피해와 50여만 명의 이재민을 냈다. 아체 주민은 이와 같이 전쟁과 내전, 그리고 쓰나미 대재앙으로 많은 고통과 큰 상처를 받은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아체 지역에는 아체 족(Acehnese)이 79%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과 인도에서부터 바탁(Batak) 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적 혼합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아체 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외세에 굴하지 않는 강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아체 족은 전통적으로 모계사회로 결혼하면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관습이 있고, 아체지역 태생 이외의 주민들과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보통 우리는 이슬람을 종교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슬람을 종교로 국한시켜 이해하자면 무슬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무슬림에게 있어 이슬람은 종교이자 곧 삶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복합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슬람 자체를 하나의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 아체지역의 이슬람교도 무슬림은 샤피-수니파 원리주의자들로 99.9%로 보고하고 있다.

주도(州都)인 반다아체에는 감리교 등 개신교 3개소, 가톨릭교 1개소 등 4곳의 교회가 있지만 아체 족이 아닌 외부인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북 수마트라 주 접경지

역 싱낄(Singkil)에 10여 개의 교회가 산재하고 있으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외에 일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13일 무슬림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아체 정부에 대해 교회를 폐쇄하라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다.

(2) 아체 지역의 사회, 교육, 문화 특성

아체는 1945년 2차 대전 후 2005년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60여 년간의 분쟁지역으로 외부 세계와는 극단적인 단절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의 공백이 있었다.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했다. 노년층은 물론 청년들 심지어 소년들까지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교육공백이 문맹률이 높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세대 간의 정서적 공백이 크게 벌어져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쓰나미 대재앙은 아체의 인적 물적 거의 모든 자원을 파괴했다. 시아쿠알라 대학교의 교수진과 가족도 쓰나미로 2백여 명이 희생되어 아직까지도 충원되지 못하고 60% 정도의 교수진만이 상위학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슬람 문화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삶의 일체라는 점에서 이슬람 세계의 학문과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체 주의 중심도시인 반다아체조차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아직까지도 없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아체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오락이고 문화생활이다. 아체의 전통 문화 예술로는 사만(Saman)이라는 아체 전통 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아체지역의 정치, 경제, 산업의 특성

2005년 8월 15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평화협정을 맺고 특별자치주로 출발한 아체는 평화협정에 규정에 의해 제정된 법에 따라 외무, 국방, 국가안전, 통화 재정, 사법, 종교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체특별자치주는 인도네시아 34개 주에서는 유일하게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로 철저히 샤리아로 통치하고 있으며 이슬람 외에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1기에 이어 3기(2017년-2023) 아체특별자치주 선거에서 주지사로 당선된 Irwandi Yusup주지사는 전직 국립시아쿠알라대학의 교수와 GAM(자유아체운동)의 대변인 출신이지만 주정부 지도자들이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치자주로서의 입법, 사법, 행정 제도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 일은 물론 쓰나미 재해 복구와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등 중앙정부와 외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주 정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아체는 금, 철광석, 석유, 가스 등 자원의 보고로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때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 진출로 경제적인 교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체와의 산업 교류를 위한 창업 프로그램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Badan Pusat Statistik, 2014)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GDP(국내총생산)는 1조 3,230억 달러로 2012년 PPP(구매력평가) 기준 세계 16위, 1인당 GDP는 3,562.6 달러(PPP 기준 5,280달러)이나 아체 지역 경제의 지표는 이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Ⅵ. 향후 아체지역과의 문화산업 교류의 활성화 방안

1. 교류협력의 추진 시스템 구축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기 위하여 현 '아체한국문화원'의 기능을 '문화산업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정부 및 문화산업 기관과 협력하여 아체지역 교류협력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아체 지역의 협력대상 기관인 특별자치주와 대학 등 문화산업 관련 기관들과 구체적인 문화산업 교류 전략을 수립하고 쌍방 간 다양한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방적이 아닌 쌍방 간의 교류로 상호 보완적인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문화산업 교류의 방향은 먼저 상호간에 필요를 충분히 협의하여 어떤 문화 콘텐츠를 선택할 것인가를 선별적으로 결정하고 교류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2. 교육기관 간의 교류 확대 및 강화

교육은 영아로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하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교육기관 간의 상호협력으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상이한 교육제도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류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체 지역의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MOU)을 통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아체 시아쿠알라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인 열방대학을 비롯하여 제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대전대학교, 인덕대학교 등과 MOU를 맺고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체 주정부 기관에서는 어린이 유치원과 국제학교 직업전문학교 설립 운영과 기능 전문직 인력 훈련을 한국에서 협조해 주기를 제안하고 있다.

3. 대학 간 스칼라십 교류학생 및 교직원 교류

아체 대학생들은 한국에 유학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아체 대학생 10여 명이 스칼라십을 받아 교류학생으로 유학을 했으나, 한국정부와 대학의 스칼라십이 제한되어 있어 아체 학생들이 자비로 유학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한국 대학에서는 대부분 한국에 유학지원 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서 3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외국학생의 특별 장학제로 6개 월 내지 1 년간의 한국어 수강 기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입학 또는 편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아체 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환경에 따라 예・체능과 의학 및 기술계통 전문부야의 학문이 낙후된 실정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삼술(Prof. Dr. Samsul Rizal) 시아쿠알라대학교 총장은 일본에서 학위를 받았음에도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한국을 모델로 학습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4. 문화산업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류확산

현재 시아쿠알라대학교의 언어센터(Pusat Bahasa, Unsyiah)에서는 한국어 반 8개 클래스 강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과 일반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아카데미를 시중에 개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카르타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아체를 방문하거나 지원하여 '한국음식문화축제'를 매년 라마단 금식기간 전후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아체 대학과 주 정부 지도자와, 주민 대표들 그리고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대개 400명 이상이 참가한다. 음식축제와 때를 맞추어 한국 및 아체 전통 무용과 가요, 태권도시범 등 문화예술 공연을 아체 대학생들과 단기 파견 한국 대학생들이 연합하여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한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는 이슬람권과의 한류 확산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다. 오늘날 문화산업은 그 범위와 콘텐츠가 다양하므로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로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봉사할 때 교류의 폭을 넓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태권도 등 스포츠 및 예술문화 교류의 활성화

한국의 고유한 국기인 태권도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와 미술, 음악 등 예체능 지도자들을 아체에 파견하고 아체 체육 지도자와 선수들을 초청하여 양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한다면 양국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문화산업 교류를 확대하고 더불어 한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문화원에서는 아체 대학 당국과 주 정부지도자들에게 한국과의 친선 경기 등 스포츠 교류를 구체적으로 제의하면서, 불비한 아체의 체육시설 확충과 국내 및 국제 주요대회를 아체에 유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아체 주정부에서는 태권도, 양궁, 축구, 배구, 농구 등 구기 종목과 유도, 레슬링 등 투기 종목의 한국 지도자들이 아체 주 청소년 선수들을 지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7년 9월 초에 태권도 4단의 자매사범이 아체 대학생들과 현지 청소년 주민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언어 연수를 받고 반다아체 들어갔다.

6. 아체지역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팀 방문

해마다 현장실습을 위해 두 세 차례 정도 아체를 방문하는 기독교 대학생 팀들의 'Korea-Aceh 캠프'를 통해 아체 대학생 및 청소년들과의 공동생활과 학습, 문화교류, 사적지 탐방, 봉사활동을 통한 「우정과 친선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독미술학교 팀이 아체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미술 워크숍과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미술 실기지도는 매년 큰 행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종교와 신앙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 다르지만 문화산업의 교류를 통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아체 지역 주민들과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더해가고 있다. 매년 자카르타 교회 지도자들의 아체방문 또는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전통음식문화축제'는 상이한 전통의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현지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다 차원 높은 우정과 친선, 그리고 형제애로 발전시키고 있다.

7. 문화산업 교류 추진의 핵심 가치 "사랑"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의 방향은 오직 성경 말씀의 새 계명에 따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추진한다. 그리스도인의 사상적 가치로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재하는 대의로써 영원히 변치 않는 '크리스천의 얼개'로서 그 영원성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정중호・심종석, 2016: 1-8). 오늘날 이슬람권에 속하는 인구는 세계인구 71억1천4백만 명의 22.43%에 해당하는 15억6천2백만 명으로 추정된다(US Census Bureau, 2014). 이슬람이 아라비아의 예멘을 통해 최초로 아체에 들어와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에 전파되었듯이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이슬람권에 확산된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잠 16:3)는 말씀이 증거 될 것이다. 인간이 감히 '아가페'(Agape: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 할지라도 사람이 서로 교감을 나누는 필리아(Philia: 우정적인 사랑)가 원활하게 소통된다면 그 사회는 한결 평화롭고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보다 더 위대한 예술은 없다'고 한 반 고호(Vincent Van Gogh, 1853-1890)의 세계관이 바로 문화산업 교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2004년 쓰나미로 한 순간에 20여만 명의 생명이 희생된 아체 주민들에게 베푼 작은 사랑의 손길이 인연이 되어 MOU를 맺은 후 나눔의 사랑과 축복이 되어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는 이슬람권과의 관계가 점차 우호적이며 친밀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진화되면서 다각적인 문화산업 교류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은 인도네시아 아체에도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드라마, 노래, 영화, 게임은 물론 한국의 언어, 전통 음식과 의상 등에 이르기 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체 주 지도자들은 1950년대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 속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한다. 20세기에 등장한 대중문화로서의 한국 문화산업도 SNS와 같은 대중매체 도구의 영향으로 점차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다. 아체 지역의 무슬림 청소년과 주민들도 한국의 K-Pop, 드라마와 춤, 노래, 스포츠를 접하면서 열광하며 동호인 그룹을 만들어 '한류'에 몰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한다. 특히 한국 태권도는 스포츠로서 뿐만 아니라 호신무술과 격투기로 또는 무용으로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아체 젊은이들에게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는 우리의 대중문화를 매개로 아체 주민과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고 국내 스포츠와 예체능 분야별 전문인들이 연합하여 아체와 모든 이슬람권 지역에 한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통해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아체와의 문화산업 교류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원리주의 이슬람권인 아체에서 실현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대중문화에서부터 시발된 한류열풍을 인도네시아와 여타 이슬람권에도 파급 확산하게 되는 효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아체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체 지역과의 문화산업 교류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아체에서는 현재 외국인 거주자와 여행자들에게도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중동의 아랍과 아프리카의 이슬람 등 타 지역 이슬람권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선 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무슬림들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이슬람권과의 친선과 우정은 증진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슬람권에 확산되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온 세계 인류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증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는 계속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공일주 (1997a). **이싸냐? 예수냐?**. 조이선교회, 79.

[Ilju Kong (1997a), Issa? Jesus?, *Joy Mission*, Seoul, Korea, 79.]

공일주 (2008b). **코란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88.

[Ilju Kong (2008b), An Introduction to Qur'an. *HUFS Press*. Seoul, Korea, 88.]

공일주 (2010c). **이슬람 율법**. 살림출판사.

[Ilju Kong (2010c), The Islamic Law. *Sallim Publishing co.*]

김승수 (2007). **정보자본주의와 대중문화산업**. 한울아카데미. 15.

[Seungsoo Kim (2007), Information capitalism and mass culture industry. *Hanul Publishing Group*, 15.]

김요한 (1990). **신약개론**. 서울: 가나다 출판사.

[John Kim (1990).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Ganadas Press*. Seoul, Korea.]

김용선 (2002a). **코란(꾸란).** 명문당.

[Yongsun Kim (2002a), The Qur'an. *Myungmundang Publishing co.*]

김용선 (1991b). **코란(꾸란)의 이해.** 민음사.

[Yongsun Kim (1991b). Understanding the Qur'an. *Minumsa com.*]

김정위 (1993). **이슬람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2.

[Jhungwee Kim (1993). An Introduction to Islam. *Press_HUFS*. Seoul, Korea.]

김성호 (2012). "글로벌 시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0(4), 180-203.

[Sungho Kim (2012). A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in the Global Age. *Logos Management Review*, 10(4), 180-203.]

김형길・이규현 (2013). 교회성장을 위한 마케팅 과학의 적용. **로고스경영연구**, 11(2), 37-54.

[Hyunggil Kim and Kyuhyun Lee (2013). Application of Marketing Science for Church Growth. *Logos Management Review*, 11(2), 37-54.]

남은영 (2016).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한류 수용 양상: 세속적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Acceptance of Korean Wave in Azerbaijan: Focusing on secular Islamic culture.*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Seoul, Korea.]

문화관광부. (2002). **문화산업백서.**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02). White Paper on Culture Industry.]

삼성경제연구소 (2004). **한국문화산업의 7대 발전과제**.
[Samsung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2004). Seven Major Challenges of Korean Culture Industry.]
성서원 (2010). **좋은 성경**(개역개정).
[Bible House (2010). The Premium Good Study Bible].
안종배 (2012). **콘텐츠 마케팅-Contents Marketing**. 박영사.
[Jongbae Ahn (2012). *Contents Marketing*. Pakyoungsa.]
양승윤 (2003). **인도네시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Seungyoon Yang (2003). *Indonesia*. HUFS Press, Seoul, Korea.]
어성호 (2010). 신학교 사역을 통한 이슬람 사역의 허와 실. **국제다문화포럼 Contexts, (KMIC)**, (2010.2.9.-10, Semarang, Indonesia), 33.
[Sungho Eoh (2010). Hell and room of Islam ministry through seminary ministry. *Seminar in Semarang, Indonesia*, 9-10 Feb., 33.]
외교부 (2010), **인도네시아 개황.** 인도네시아 경제/인도네시아 문화와 관습.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0). *Introduction to Indonesia: Focusing on Economics*. Culture and Customs.]
정수일 (2002). **이슬람 문명.** 서울: 창비.
[Sooil Jhung (2002). *Islamic Civilization*. Changbi Publishers.]
정중호・심종석 (2016). 다문화 사회의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교의적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14(1), 1-18.
[Joongho Jhung & Jongsok Shim (2016). A Doctrinal Review on the Status of Foreign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Logos Management Research*, 14(1), 1-18.]
조성표 (2003). 성경의 재물관. **로고스경영연구**, 1(1), 41-54.
[Sungpyo Cho (2003). Biblical Property. *Logos Management Review*, 1(1), 41-54]
하호성 (2011). 인도네시아종교현황: 인도네시아선교 40주년 기념집. **인니한인선교사회**, 16.
[Hosung Ha (2011). Indonesia Religious Status: The 40th Anniversary of Indonesia Mission. *Korean Mission Society in Indonesia*, 16]
한국이슬람연구소 (1996a). **이슬람의 이상과 현실**. 예영 커뮤니케이션.
[Korea-Islam Institute (1996a), The Ideal and Reality of Islam. *Yeyoung Communication*.]
한국이슬람연구소 (2004b). **민속이슬람**. 김아영 편. 예영 커뮤니케이션.
[Korea-Islam Institute (2004b). *Folk Islam*. A-Young Kim ed., Yeyoung Cpmmunication.]

현한나 (2014). 이슬람국가(IS)와 성전(지하드) 가운데 들려올 소식 “평화”. **신앙과 학문**, 20(1), 199-231.

[Anna Hyun (2014). The message to be heard among the Islamic countries (IS) and the temple (Jihad) ‘Peace’. *Faith and Scholarship*, 20(1), 199-231.]

Bird Jack (1992).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중동선교회, 도서출판 예루살렘, 30.

[Bird Jack (1992). *What is Islam?*. Middle East Mission, Jerusalem, 30]

Cooper Ann (1985). **우리형제 이스마엘**. 편집부 역 (1993). 도서출판 두란노, 32, 48.

[Cooper Ann (1985). *My brother Ishmael*. Editorial Dept. Duranno, Seoul, Korea, 30.]

Creswell, John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조흥식 외 역. 학지사, 121-123, 431-463.

[Creswell, John W. (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e Compte et al. Hakjisa Publishing co., Seoul, Korea, 121-123, 431-463.]

Gymrek, Rob & Stephen (2008). 수마트라 아체 보고서. 1-12.

[Gymrek, Rob & Stephen Goode (2008). Report Aceh in Sumatura, 1-12.]

Huntington, Samuel P. (1997).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1997). 김영사. 243-276, 363-410.

[Huntington, Samuel P. (1997).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Gimmyoung Press, Seoul, Korea.]

Johnston Patrick (2002). **세계기도정보**. 조이선교회 출판부/WEC, 583.

[Johnston Patrick (2002). *World Prayer Information*. Joy Mission, Seoul, Korea, 583.]

Lester C. Throw (1999). 한기찬 역. **지식의 지배: 부는 지식이 결정 한다.** 생각의 나무.

[Lester C. Throw (1999). *The dominance of knowledge: wealth is determined by knowledge*. Namu Book, Seoul, Korea.]

Lapidus, Ira M. (2008). **이슬람의 세계사 1.** 신연성 역. 이산, 634.

[Lapidus, Ira M (2008).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1. Isan Publishing Co., 634.]

Abu Bakar & Aceh Province (2013). *Buk Saku,* Aceh, Kerasama Bappeda Aceh Dengan Badan Pusatstatsstik Aceh, Indonesia, 39-104.

Aceh Province (2005a). *BRR Report on Aceh Tsunami on 26 Dec. 2004.*

Aceh Province (2013b). *Buku Saku Aceh* (The Pocketbook of Aceh), (BAPPEDA, Badan Pusat Statistik, Provinsi Aceh), 463-479.

AJRC (Aceh Justice Resource Center) (2009). *An Evolving Model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nd Peace building in Aceh-Analysis of the Aceh Peace Process from an Acehnese Prospective Wiratmadinata.*

Asia Research Institute. et al.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eh and Ocean Studies II Civil Conflict and Its Remedies 23-24 Feb 2009, Banda Aceh, Indonesia.*

Ananta, Aris, Lee Poh Onn (2007), *Aceh, ISEAS,* Singapore, 7-14.

Barker, Chris (2002). *Making Sense of Cultural Studies: Central Problems and Critical Debates* (Abridged). Sage Publications Ltd.

East-West Center, (2005). *The Helsinki Agreement*, A More Promising Basis for Peace in Aceh, Washington DC, Policy Studies 20, Aspinall, E.

Goudzwaard, Bob. (1979). *Capitalism and Progress*. Toronto, Canada, Wedge Publishing Foundation.

INDONESIA. (2003). *Anguish in Aceh, and Casualties of the War In Aceh*. Lapidus, Ira.

M. (2002).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I & II.

Maudui, Abdul A'la. (1981). *Towards Understanding Islam*, Islamic Foundation, Leicester, 91.

Musk, Bill A. (1979). *Popular Islam: The Hunger of the Heart*. The Gospel & Islam: A 1978 Compendium, Don M. McCurry ed. Monrovia, CA: Missions Advanced Research and Communication Center, 218.

Musk, Bill A. (1989). *The Unseen Face of Islam. Eastbourne*. E. Sussex: MARC, Evangelical Missionary Alliance. 202-203.

Overland, Martha Ann (2005). "Post-Tsunami Aid Fails to Reach Universities in Banda Aceh, *Chronical of Higher Education,* Vol. 52 Issue 17, 37-38.

Samsul Rizal, M. Eng, (2014). Rector(President) of Syiah Kuala University, Banda Aceh, Indonesia, interviewed on 7, November, 2014.

Stott, John R. W. (1979). Creative by Creation: Our Needs for Work. *Christianity Today*, 27(6), 32-33.

Wiratmadinata(2008), *An Evolving Model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nd Peace building in Aceh*. Aceh Justice Resource Center(AJRC), 103-132.

인터넷 자료

"Foreign Policy in Focus/Indonesia: An Archipelago of Self-determination & Communal Conflicts." Retrieved from http://www.fpif.org/(2016.10.10)

"Aceh's History of No Surrender." Retrieved from http://www.worldpress.org/World Press Review/ (2014.10.5.)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4," Retrieved from http://www.census.gov/ (2016.10.9.)

논문초록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 방안 연구
-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을 중심으로 -

김성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김형길 (교신저자/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 논문은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무슬림 인구가 2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의 한 특별자치주인 아체지역을 대상으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는 지금까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아체는 2004년 12월 26일 20여만 명의 희생을 가져온 최악의 쓰나미 재앙을 당함으로써 2005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헬싱키평화협정」을 맺고 특별자치주가 되기까지 30여 년간 아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군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외부 세계와는 극단적으로 폐쇄되고 차단돼 온 분쟁지역이었다. 샤리아 즉, 엄격한 이슬람율법으로 통치하는 아체지역과의 문화산업 교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체지역의 이슬람 실체와 특성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교류는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아체 지역과 같은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문화산업원'과 같은 비정부기관을 현지 이슬람 정부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둘째, 현지에 적합한 문화산업 콘텐츠를 선택 개발하여 교류 방안을 구체화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셋째, 교류 협력의 추진은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슬림 주민들을 진정으로 도우며 형제애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추진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체와의 문화산업교류가 점차 활성화 되어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 모든 이슬람권과의 문화산업 교류를 보다 폭 넓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슬람권에 확산되면 무슬림들과의 우호적이며 화해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평화로운 사회를 세워 가게 될 것이다.

주제어 : 문화산업 교류,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율법, 성경적 세계관